

플랜잇파트너스(사학과 20)

▼ 현재의 직장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데이터 관련 직무 취업 준비를 하던 중, 같은 과 선배에 추천을 받아 채용 전환형 인턴 면접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한층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분야 취업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들, 또는 준비를 했더라면 도움이 되었겠다 싶은 것들을 말씀해주세요.

데이터 관련 복수전공을 이수하며, 여러 주제의 프로젝트 경험을 가졌습니다. 졸업 후, 데이터분석 부트캠프 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비전공자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데이터 직무 시장에서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데이터 관련 직무는 아무래도 컴퓨터 계열의 전공자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어필하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취업 준비에서의 슬럼프는 남들과의 비교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는 길에 확신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KT(영어영문학과 14)

▼ 현재의 직장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 ● ●

대규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경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개발자로 성장하면서도 이후에 매니저/시니어 엔지니어로의 커리어 패스 선택에서도 폭이 넓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영기업이지만 주인이 없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 해당 분야 취업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들, 또는 준비를 했더라면 도움이 되었겠다 싶은 것들을 말씀해주세요. ● ● ●

우선 입사를 SW개발직군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개발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익혔습니다. 코딩 테스트 준비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채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필기와 면접 강의도 들었고, 마스터자기소개서를 써놓는 것도 자소서 발전시키는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트렌드가 AI와 바이트코딩으로 변해서 이런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좋은 톨과 기술을 잘 찾고 활용하는 능력도 역량이 된 것 같습니다.

▼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 ● ●

요즘들어 제가 취업을 준비했을 때 보다는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인만큼 뭔가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운 좋게 먼저 입사한 사람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재수도 했고, 학교도 6년 정도 다녔고, 취업은 29살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하고 불안해질 때마다 모두 자신만의 속도가 있고, 분명히 나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자신의 선택을 믿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치열하게 하고 싶은거 전부 많이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